

# ‘전기요금 차등제’ 등 법·제도 개선 촉구

## 도, 에너지분야 공동학술대회서 필요성 제기 풍력발전특별법 제정·농지법 개정 등도 공유

전남도가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법제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전기요금 차등제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7일 “최근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국제법, 헌법, 행정법 등 국가법 분야 최고 연구단체인 한국국가법학회,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제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선 학계,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응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준식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법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도 에너지 개발과 정책’, ‘에너지 위기 시대 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 에너지법의 검토’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에너지 분야 관련 법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학술대회에서 해상풍력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영농형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 정부, 전문가단체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외 에너지 이슈에 맞춰 산업발전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법 제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 대처하겠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GW 주빈 상생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에너지산업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2021년 기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량 전국 1위, 발전량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김재정기자

#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정보 교류...건설안전 미래 방향성 논의

## ‘안심도시 광주’ 심포지엄 개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광주시는 7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2022 건설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위원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협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건설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건설안전 선도시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건설안전 광주’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건설기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와 건설 안전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스마트건설과 건설안전(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스마트건설기술의 현황과 미래(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건설안전 정책(정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팀장) ▲건설현장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박대성 한국건설안전협회 광주지회장)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경제논리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팀장은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안전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한다”며 “안전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고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둔 안전규정, 시공사 외 발주자·설계자·감리자·근로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적용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의 활성화 방안도 활발히 논의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유해 위험요인과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도입 시 전반적인 작업자 안전수준이 향상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도입 의무화 확대, 정부의 비용 보조, 근로자의 협조와 관리·발주자의 관심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은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의 리더십과 기술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R&D(연구개발)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술 규제 개선, 필수적인 인력 양성, 건설산업 스타트업 활성화, 현장 적용성에 기반한 기술 확보도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박대성 한국건설안전협회 광주지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등 실무에서 필수적인 부분과 산업 재해 방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인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도입, 우수 건설기술인 표창, 건설안전을 다짐하는 카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건설현장은 끊임 없는 혁신으로 신기술·스마트화되고 있고 이번 행사는 그런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자리”라며 “안전사고가 단순히 기술이 없거나 스마트화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광주는 두 번의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부단히 건설안전에 노력해야 한다”며 “겨울철 건설현장의 안전이 많이 걱정된다.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도, 비만 예방관리 사업 최우수기관 표창

## 경연대회·걷기 도전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 확대 호평

전남도는 7일 “비만 예방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 표창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비만 인식 개선을 위한 합동캠페인 및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 아동 비만 예방활동, 도민 참여를 유도한 신체활동 경연대회 및 일상 속 걷기 생활 챌린지 등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비만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라는 주제로 시·군 합동캠페인 진행, 누리소통망 건강 소통 채널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보건소 건강한 돌봄놀이터’ 34개소를 운영해 참여 아동의 비만을 감소와 식생활 개선, 신체활동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10월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신체활동경연대회는 올해 11년 째 이어온 대회로 22개 시·군에서

1천여명이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광역지자체 주도 행사 중 전남이 유일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습관 변화로 비만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일상 속 걷기 실천 챌린지(워크온),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영양·운동 교육 등 비대면 사업에 적극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직장, 가정 등 일상 속 비만 예방을 위해 생활터 비만 관리, 마을터 걷기동아리, 직장인 야간 운동교실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미 건강증진과장은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과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 늘리기 등 건강생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용해 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공무원노조 ‘행복 콘서트’ 성료

## 의료인·수협생 초청...다비치·홍경민 등 출연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나, 오늘,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복 콘서트에는 다비치, 홍경민, 오아라 등 가수들이 출연했다.

오후 4시 시작한 1부는 간호사 등 의료인과 고3 수협생 등을 초청해 진행됐고, 오후 7시 시작한 2부는 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는 2부 시작에 앞서 ‘가장 닳고 싶은(베스트) 간부’ 4명에 대한 선정패도 전달했다.

지난달 23-25일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6급 이하 조합원 1천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베스트 간부에는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3급),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4급), 김은희 해양수산과학원동부지원 고층지원장(5급), 김영준 식품의약품·음식문화진흥(5급)이 선정됐다.

이용민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인을 위로하고 능력이 끝난 고3 수협생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100% 회복

화물연대 파업 이후 0%까지 떨어졌던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7일 오전 파업 전 평소 수준을 회복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9시간 동안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천76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 25TEU와 비교해 대폭 늘어났으며 파업 이전 같은 시간대 평소 반출입량 3천400TEU도 초과하면서 완전 정상화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전날 오전부터 복귀하면서 전날 오후 3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1천675TEU까지 증가했다.

장지출(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이날 오전 기준 67.3%로 평상시(60-65%) 수준을 웃돌고 있다.

광양항은 항만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과 천막이 전 날 오전부터 치워지면서 물류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국토교통부·국방부 등의 비상 수송차량 22대를 임시 투입해 화물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밀린 화물이 쌓여있는 만큼 동원 가능한 화물 차량을 투입해 화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사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정복순(410613-2642712). 2013.7.21. 사망 최후주소 : 광주 동구 경양로 379번길 9-1 (산수동) 재산상속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2022.12.8.-2023.2.7.)내에 채권 또는 수증 등을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지 않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립니다.

○ 한정승인수리일: 2022. 12. 6.

○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2년 단4107 상속한정승인

○ 청구인(상속인): 서일석

○ 신고처: 광주 북구 용봉로 28번길 8(신안동) (010-3614-5656)

**광주역앞 양한방용 병원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 6층연건평1,345㎡

○ 병실25개, 70베드, 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인수와 동시에 반물 영업가능

[급매] 27억5,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사별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시오피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적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